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김세빈_회장

광주·전남지구협의회는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974년 3월 16일에 창립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지구 공공도서관, 초·중·고·대학도서관 등 상호간의 협조와 도서관 사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향토문화 행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탄생하여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사립도서관장 및 직원, 각급학교 교장, 사서담당, 대학도서관 사서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 '공공·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제1회 '우수도서관인상'을 제정하여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인을 발굴, 선정하여 현재 사서 3명, 교사 1명을 표창하였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높이고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감상문공모전'을 개최하여 부분별로 우수학생에게 시상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에는 전남 나주공공도서관에서 (전)호남대학교 송준용교수를 초빙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와 도서관의 독서운동'이란 주제로 광주·전남 공공도서관과 학교 및 대학도서관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본 협회는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생활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광주·전남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도서관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지구협의회 임원은 김세빈 회장(금호교육문화회관 관장) 비롯한 3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도위원 : 정형현(광주중앙도서관 관장), 이근모(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박형순(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 김 승(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재훈(목포공공도서관 관장), 최종률(나주공공도서관 관장), 유권철(전라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회 장 : 김세빈(금호교육문화회관 관장)

부 회 장 : 이영규(매곡초등학교 교장), 조영추(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장), 김경욱(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과장), 박종권(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박순덕(목포공공도서관 문헌정보과장), 박진성(화순공공도서관 관장)

이 사 : 김종구(별곡공공도서관 관장), 김형구(남평공공도서관 관장), 박동식(금호교육문화회관 운영과장), 박형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보과장), 박혜정(곡성공공도서관 관장), 서한숙(담양공공도서관 관장), 송영임(장성공공도서관 관장), 안미영(일곡도서관 관장), 안영희(금호교육문화회관 문헌정보과장), 이상(광주송정도서관 관장), 장혜란(화순공공도서관 운영실장), 정재균(나주공공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정용대(광주화정초등학교 교장), 정화지(나주공공도서관 사서계장), 조정희(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과장), 최상욱(광주중앙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사무국장 : 이 상(광주송정도서관 관장)

감 사 : 김중성(장흥공공도서관 관장), 이랑순(광주송정도서관 문헌정보과장)

[문의 : 이상 사무국장, 전화 : 062-941-9411~3, 전승 : 062-944-9411, email : lees7@gen.go.kr, 주소 : (506-04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송정도서관 내]


프리우어북

이정식_프리우어북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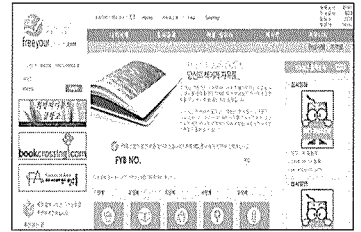
프리우어북(www.freeyourbook.com)의 책 나눔 혹은 책 해방운동은 나의 소유 물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환해 보자는 의미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내 책장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의미 없이 공간을 차지하는 책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책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미지의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상은 참으로 유쾌한 문화운동이라고 아니 할 것이다.

이 운동은 2001년 3월 미국의 론혼 베이커 라는 사람에 의하여 처음 미국 땅에서 시작된 북크로싱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은 유럽에도 건너가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적용되면서 발전되어온 북크로싱은 현재 미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회원과 등록된 책 1백만 권 이상으로 명실상부한 문화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이 운동의 흐름을 미국에서 파악한 김정호에 의하여 2003년 12월부터 사이트 기획을 위한 의견교환을 국내에 있는 이정식과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2004년 3월에 사이트를 오픈 하였고 현재 2500여명의 회원과 등록 책 수 2100권여에 이르고 있다.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미국식의 무작위 책 풀기보다는 유럽식의 일정 장소를 포스트로 정하여 그곳에 책을 갖다 놓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식의 포스트를 정하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정한 의미의 책 자유주기라기보다는 책을 돌려보는 마을문고와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식으로 아무렇게나 본인이 자유를 주고 싶은 곳에 책을 놔두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는 주로 장년층이 참여하는 것과 달리 학생과 젊은 청년층 위주로 운동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다 역동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난 4월말 인천의 고등학교 교사모임에서 고등학생들의 책 돌리기 행사, 그리고 5월에는 광주에서 5·18재단과 손잡고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책 돌리기 행사를, 한겨레21과 함께 진행하여 많은 시민과 유명인사들이 참여한 행사, 천안의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한 행사와 울산지역의 행사, 기업체내부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과 젊은층들이 참여하였다. 사회운동으로 독서와 책에 대한 인식이 그리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젊은층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비록 지금까지 서구에 비하여 독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책을 덜 읽는다는 우리나라에도 기폭제가 되는 계기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하여 문화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책장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던 책을 미지의 장소에 두고 돌아설 때의 설렘은 한동안 이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에 유쾌한 긴장감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온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자유를 준 책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은 예전에는 아무도 경험치 못한 즐거움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등록하고 고유번호가 부여된 책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갖다 놓아 책에게 자유를 주면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자유를 준 내 책이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참여한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이 과정이 의외로 즐겁고 긴장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내 책을 보게 될까 하는 즐거운 기다림을 보다 많은 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문의 : www.freeyourbook.com, 전화 : 019-427-7077, e-mail : admin@freeyourbook.com]



(<http://www.freeyourbook.com>)